관음종 제13대 총무원장 도각 스님 취임

8월 6일, 낙산묘각사서 임명식
"화합·사회적 책임으로 신뢰"
개산조 태허 조사 47주기 다례재
홍파 스님 "조사 스님 정신 잇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관음종 제13대 총무원장에 도각 스님이 공식 취임했다.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왼쪽)은 8월 6일 서울 낙산묘각사에서 도각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관음종 제13대 총무원장에 도각 스님이 공식 취임했다. 도각 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자비행 실천과 종단 화합, 사회적 책임을 핵심 운영 기조로 제시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종단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관음종은 8월 6일 서울 낙산묘각사에서 '개산조 태허 조사 47주기 열반다례재 및 제13대 총무원장 임명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단 원로와 사부대중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개산조의 뜻을 기리고 새 총무원장의 출발을 축하했다.

신임 총무원장 도각 스님은 취임사에서 "관음종 총무원장이라는 소임을 맡게 된 것은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한다"며 "총무원장 소임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인 자비행을 종단의 사명으로 여기며 수행하고 실천하는 자리인 만큼 종단 화합과 자비행을 실천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 정신을 종단 운영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각 스님은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 정신은 언제나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었다"며 "관음종도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국민과 함께하며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종단으로 더욱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종단 운영의 핵심 가치로 화합과 상생을 제시하며 자비 실천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각 스님은 "자비를 위해 눈이 되고, 손이 되며, 길잡이가 되겠다는 관음종도의 마음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화합과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수행 전법을 더욱 활성화하고 자비 나눔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불교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관음종을 만들어 가겠다"며 "항상 낮은 자세로 대중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천하는 총무원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도각 스님은 1990년 총본산 낙산묘각사에서 홍파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2년 죽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낙산묘각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6안거를 성만했으며 2020년 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일본 조세이탄광 위령재 집행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했으며 현재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소임을 맡고 있다. 관음종 종무부장, 총무원 부원장, 12대 총무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임명식에 앞서 봉행된 '개산조 태허 조사 47주기 열반다례재'에서는 종정 홍파 스님이 법어를 통해 관음종의 창종 정신과 실천 수행의 의미를 되새겼다.

홍파 스님은 "태허 조사 스님은 부처님처럼 중생 속으로 들어가 어려운 시대를 함께하며 수행과 포교를 실천했다"며 "오늘날 우리도 조사 스님의 믿음과 사상, 정신을 이어받아 중생과 함께하는 수행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전쟁 이후 태허 조사 스님은 2년 5개월 동안 매일 파고다공원에서 서울 시민들에게 법을 전하며 절망 속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며 "이 같은 거리 포교 정신이 오늘의 관음종이 계승해야 할 수행과 포교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연법을 언급하며 "작은 인연 하나도 큰 공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태허 조사 스님의 정신을 이어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과 실천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태허 조사(1904~1979)는 포교와 교육, 사회참여를 실천한 선각자로 평가받는다. 1919년 경성예비고 졸업 뒤 일본 경응대에서 수학한 후 1928년 낙산묘각사에서 수행을 시작했다. 1940년 낙산묘각사 초대주지로 취임해 묘법연화경 등을 연구하며 교육과 포교에 정진했다. 1858년부터 2년간 서울 종로 파고다공원에서 거리설법을 이어가며 '대중 속의 불교'를 실천했다. 1965년 관음종 창종 제1세 종정에 취임했으며 1979년 세수 76세로 열반에 들었다.

태고종, 일본 지진 희생자 애도

상진 스님, 7월 30일 애도문 발표
더프라미스, 긴급 모금 지원 확대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7월 28일 규모 7.1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강진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태고종 총무원장이자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상진 스님은 7월 30일 발표한 애도문을 통해 "7월 28일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두손 모아 발원한다"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지진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의 재해이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구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우려되는 후속 지진과 추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일본 정부와 관계 기관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교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국경을 넘어 고통을 함께 나누는 연대의 뜻도 밝힌 상진 스님은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 그리고 일본 국민 모두가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교계 국제구호 NGO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는 강진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긴급 모금을 시작했다. 현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02-735-3119 후원 계좌: 하나은행 158-910020-26904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임은호 · 이현희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가운데)은 8월 3일 총무부장에 정문 스님(오른쪽), 사회부장에 진경 스님을 임명했다.

조계종 총무부장에 정문 스님 임명

8월 3일, 사회부장에 진경 스님
"종단 안정 · 화합에 역할 해달라"

조계종 총무부장에 정문 스님, 사회부장에 진경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8월 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부실장 인사를 단행하고 정문 스님과 진경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두 스님에게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먼저 정문 스님에 대해 "그간 스님께서는 종단의 주요 소임을 두루 맡으며 종단 운영과 안정, 화합에 모범을 보여 왔다"며 "종도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저 역시 종단에 처음 올라왔을 때 사회부장으로 계시며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고, 종회의장으로 재직할 때도 늘 소통으로 종단을 이끌어온 존경하는 스님"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은 엄중하고 긴장된 시기인 만큼 수석 부장으로서 역할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진경 스님에게는 "이미 한 차례 사회부장 소임을 보면서 사회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쌓았고, 사서실장을 역임하면서 누구보다 뜻을 함께해왔다"며 "역량을 잘 갖췄다고 판단해 다시 소임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본사 주지 스님들 만류에 단식 회향

정념 스님 등 6개 교구본사 주지
7월 30일 단식 현장서 "중단" 호소
본사주지협, 11월까지 활동 중단



조계종 중앙종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총무원 청사 1층 로비에서 단식 정진을 이어온 종회의원 스님들이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간곡한 만류를 받아들여 단식 10일 만인 7월 30일 회향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동화사 주지 선광, 은해사 주지 성로, 고운사 주지 등운, 대흥사 주지 법상,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은 이날 오전 화성 용주사에서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등운 스님·고운사 주지) 제78차 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단식 중인 종회의원 스님들을 만났다.〈사진〉

이 자리에서 주지 스님들은 "병원으로 이송된 스님도 계시니, 모두 건강을 생각해 단식을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성로 스님은 눈물을 보이며 재차 단식 중단을 호소했다. 성로 스님은 "이번에는 여기서 (단식을) 마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 달라"며 "교구장 스님들도 적극적으로 만류하시니 이젠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 스님도 단식 현장에 함께 자리해 종회 파행과 갈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단식 중인 스님들의 회향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공감과 미래 스님들은 "교구장 스님들이 오신 이유는 오로지 스님들의 건강을 염려해서였고, 그 간절한 청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단식 중단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87차 회의에서는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단식 사태 해법을 놓고 의견을 나눴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협의회 차원의 공식 단식장 방문은 하지 않기로 하고, 뜻을 같이하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개별적으로 단식장을 찾기로 했다. 회장단 구성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협의회는 오는 11월까지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김내영 기자

